

성인 10명 중 4명 “난 썩거루족” 2030 많아

성인남녀 10명 중 약 4명은 독립할 때가 됐음에도 경제적으로 또는 인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썩거루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성인남녀 52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7.3%는 본인을 썩거루족이라고 답했다.

썩거루족이라는 응답자는 20~30대에 특히 많았다. 연령별로 썩거루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20대(41.1%), 30대(40.6%)가 월등히 높았고, 40대 이상은 17.6%였다. 결혼유무에 따라서는 미혼자(41.9%)가 기혼자(17.4%)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스스로 썩거루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58.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적으로나 인지적으로 모두 독립하지 못해’(20.6%),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마음이 편하다’(15.9%)는 답변 순이었다. /한용수 기자

인크루트 27일 송실대서 채용설명회

인크루트는 오는 27일 오후 2시~5시까지 송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제1회 2019년 하반기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2019년 하반기 채용을 앞둔 주요기업 인사담당자가 참가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네이버, 포스코, CJ제일제당, 롯데그룹이 참가해 올해 하반기 채용 일정, 채용인원, 기타 채용 특이사항 등을 당일 공개할 예정이다.

사전 참가 신청 시 미리 인사담당자들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 ‘사전 질문접수’를 할 수 있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구직자들의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답변한다. 참가자는 선착순 2000명으로 마감되고, 현재 채용설명회 홈페이지에서 사전접수 중이다. /한용수 기자



시원스쿨은 지난 12일 육군 제72보병사단과 장병의 학업 및 자기개발,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원스쿨

시원스쿨-육군 제72보병사단 ‘1사 1병영’ 활성화 맞춘

시원스쿨은 지난 12일 육군 제72보병사단과 장병의 학업 및 자기개발,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시원스쿨은 B2B 홈페이지를 통해 장병들에게 ▲기초영어 회화▲영단어▲토익▲토익스피킹▲오픽▲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스페인어▲프랑스어▲러시아어▲독일어 등 현재 서비스 중인 총 15개 강좌를 최대 3개월 수강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을 제공한다.

육군 제72보병사단은 시원스쿨 임직원과 가족들의 안보견학과 병영체험을 지원키로 했다. /한용수 기자

학자금 못 갚는 청년 ↑... “대출이자 낮춘다”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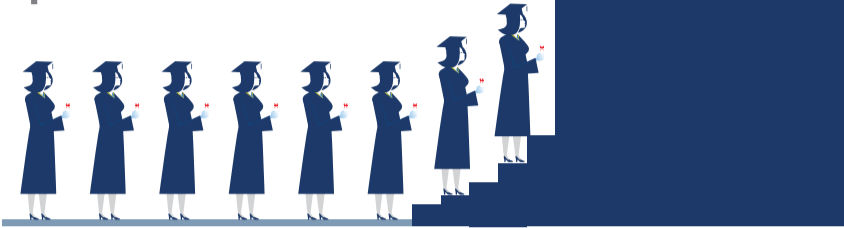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2015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다. 사회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사회 생활에 악영향을 받는 청년이 늘자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다.

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4만5980명이 학자금 이자 등을 갚지 못했다. 연체 금액은 2789억원에 달한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제도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이 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전액 무이자다.

학자금 대출 종류별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금에 대해 거치 기간에 이자만 납부하고 상환기간에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3만9791명으로 연체 금액은 2434억 원이다.

지난해 4.6만명 2789억 못 갚아
교육부, 기재부와 금리인하 논의
내달 초 ‘금리 2.0% 정부안’ 제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계추’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출은 받은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 일정 소득(2019년 기준 2080만원) 또는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의무 상환토록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도 6189명, 금액은 355억 원이었다.

학자금대출 연체율을 따져보면 대출잔액 기준으로 3.76%에 달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임금근로자들의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이 0.56%인 점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자의 연체율은 일반 직장인들의 연체율보다 7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학자금 연체자와 연체금액은 2015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라 대납하는 비용은 연간 15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처럼 학자금 대출 연체

자가 증가하자, 내년 학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2.0%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달 초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출이자를 2.0%로 인하할 경우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되므로 1년간 6억원, 5년간 73억원이 들지만, 대출자가 증가할 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도 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에 공감하고 있는만큼 학자금 대출 금리가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2010년 1학기 5.7%로 높았으나, 거의 매년 인하돼 지난해 1학기부터 2.2%로 인하한 상태다. 올해 2학기부터는 연체이자를 기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6%로 낮췄고, 내년 1학기부터는 시중은행처럼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 2.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가 완화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건국대 학부생, 대학원서 전공 탐색한다

‘학부생 연구인턴 RUS’ 호응 6개월 프로그램 170명 참여

건국대학교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혁신 분야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도입한 ‘학부생 연구인턴 RUS(Research for Undergraduate Students)’ 프로그램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건국대에 따르면, 학부생의 진로탐색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한 RUS는 학부생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 분야의 교수진 연구에 직접 참여토록 한 제도다.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 등 진로 탐색 기회를 갖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프로그램은 6개월과 4개월 두가지 트랙으로 진행되며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6개월 트랙에는 학부생 245명이 지원해, 심사를 거쳐 현재 170명이 참여 중이다. 이들 학부생들의 활동을



건국대가 학부생들의 진로탐색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한 ‘학부생 연구인턴 RUS’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생과 대학원생 멘토가 연구실에서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지원하는 대학원생 멘토에는 216명이 지원해 현재 165명이 참여하고 있다. 대학 측은 9월부터 시작하는 4개월 트랙에 참여할 학부생 30~40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부생은 활동기간 중 월 30만원의 지원금과 우수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우수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 멘토에게

도 월 20만원을 지원된다.

건국대 이종환 혁신사업단장은 “RUS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관련 분야 진로탐색을 위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학부생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대학원 연구실 문화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청해부대 강감찬함 4번째 파병임무 수행

부대 최초 여성 항공대장

청해부대 창설 10년 만에 30진으로 강감찬함(DDH-Ⅱ, 4400톤급)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30진은 청해부대 최초로 여성이 항공대장을 맡고 있다.

해군은 13일 부산 작전기지에서 심층섭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청해부대 30진 파병 환송행사를 가진다고 밝혔다.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3일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창설됐다. 지난 10년간 해외에서 해적퇴치, 선박호송, 안전항해



청해부대 30진 항공대장 양기진 소령 함미에서 하이팅을 외치고 있다. /해군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지난달까지 청해부대가 호송·안전항해를 지원한 선박은 2만2400여척,

해적퇴치는 21회, 항해거리는 127만 3000여해리(NM)에 이른다. 청해부대 30진까지 파병에 참가한 인원은 9000여명이다.

30진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강감찬함은 지난 4진(2010년)과 11진(2012년), 15진(2014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 파병임무다. 11진 때는 제미니호 피랍선원 구출·

호송작전을 완수했다.

강감찬함은 함정 승조원을 비롯하여 특전(UDT)요원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헬기(Lynx)를 운용하는 항공대 등 3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병역검사때 6·25 전사자 신원확인 DNA 시료채취

병무청 “시료 제공시 위로휴가”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한국전쟁(6·25)에서 전사한 할아버지를 찾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병무청은 13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6.25 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누리집(www.mma.go.kr)에 시료채취 신청방법과 서식을 게시해,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 전에 가족과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발송과 함께 보내는 병역이행안내문에도 유가족 시료채취 내용을 추가했다.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호국보훈 사업이다. 현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병무청도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시료채취를 하고 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8촌 이내 친·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료채취는 면봉으로 입안의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국방부에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제공에 따른 포상이 확대됐다. 시료를 제공한 병역의무자 현역으로 복무하면 위로휴가가 주어지는 등 휴가일수가 늘어났다. 또 발굴된 유해와 유전자 일치 시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받게 된다.

/문형철 기자